

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2014년 4월 1일 기준)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44.2%로 나왔으며, 진학률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38.7%로 지난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취업률이 진학률을 앞지르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는 취업률은 2009년 16.7%에서 4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진학률은 2009년 73.5%를 정점으로 2014년 38.7%까지 급격히 감소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계 및 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졸 인재의 능력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과 이를 적극 권장한 정부의 노력 등이 종합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중되는 청년실업의 고통 속에서, 대학 재입학생의 증가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증가 등으로 나타난 통계를 ‘직업에 대한 뚜렷한 이해와 자신의 적성에 기초한 진로 선택이 막연한 장래성과 학교 성적에 기초한 진로선택을 대체해 나가는 사회적 변화’로 해석한다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일까?

이제 수능시험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든 수험생들이 자신의 적성, 직업의 경계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실에서도 합리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

또 우리 사회가 수험생들의 잘못된 선택이 사회적 비용으로 확대되지 않고, 현명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화해 나가길 기원한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

© 경기일보 \$00, 11-11-333 11 5!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8 저작권문의

